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6

정윤돈 목사님

앞으로 복음편지 강의는 책으로 하면 좋겠다. 복사해서 나눠주면 버리게 된다. 복음편지 책을 가지고 10번 이상 해 보라. 인생의 행복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만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운동을 해 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직, 봉사가 아니라 말씀운동이다. 누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내가 살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복음편지 1과의 내용은 행복이다.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웃음) 이게 참 미안하더라. 그러다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어려운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대학수련회에서 사회복지 전공한 램프 50명을 만나서 특강을 했다. 그 중 1/3이 자기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 우울하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다. 다 해 봐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다. 뭔가 열심히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도 행복이 없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진도해야 하는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시간표다. 그 시간표가 온 사람에게 전하면 된다. 그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바로 들어간다.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2과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원죄 문제다.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편지를 전달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 모습이 요한에게 나와 있다.

서론

(1) 요한의 고민을 생각해 보라.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스물한 장 안에서 복음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다.

- ① 예수님이 말씀이며 빛이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 ② 그 증거가 무엇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 ③ 엘리트도 살릴 수 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지 않다. 그게 니고 데모였다. 답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이다.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16이다.
- ④ 엘리트 뿐 아니라 수가성 여인 같이 무너진 사람, 갈급한 사람도 살려내셨다. 이 사람이 갈급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된 예배의 답을 얻지 못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성 사람들에게 전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근본을 해결받았기 때문이다.
- ⑤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다.
- ⑥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 ⑦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 ⑧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린 것이다. 복음이 없으니까 수가성 여인보다 못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히 끝내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요한복음 8:44을 말씀하신 것이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 ⑨ 소경을 고치셨다. 왜 요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 ⑩ 그분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 이분이 진정한 선한 목자시다.
- ⑪ 나사로를 살리신다.
- ⑫ 모든 것을 깨뜨려서 향유로 절대 헌신한 여인이 나온다.
- ⑬ 평신도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 교만

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라는 것이다. 전도자, 목회자,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가 왜 생기는가? 예수님처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을 희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가정,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사회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가면 모두가 칭찬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사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 숫자도 적을 때였는데 그랬다. 지금은 기독교인은 많은데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기독교인 지도자가 없지 않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한다.

⑭ 주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⑮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어떤 날보다 주일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 어떤 시간보다 예배가 행복해야 한다.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답과 힘을 얻으라. 모든 응답을 받아야 한다. 나를 다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일에 성공하면 인생 나머지는 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

⑯ 우리가 조지 플라처처럼 요한복음 16:24의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말씀 성취 속에 있다. 우리 램프들이 온 천하를 싸돌아다니며 응답을 엄청 받고 있다. (웃음) 후대들이 세계 현장을 봐야 한다. 선진국을 보면 달라진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대한민국 여권만큼 좋은 여권이 없다. 중국 가서 돈 없으면 500만 원 주고 팔면... 안 된다. (웃음) 기도하면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⑱ 배신당하시고,

⑲ 돌아가셨는데,

⑳ 부활하셨지 않나?

㉑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다. 이제까지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다 정리해서 준 것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2)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복음을 계속 듣고 결혼이 나니까 사업이 망했다. 그런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술에 많이 취해서 필름이 끊어졌는데, 아들이 모시고 들어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니 했더니 그리스도만 말하더라고 했다. 여러분, 취중에서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웃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마누엘을 느꼈다. 이상하지만. (웃음) 조금 이상해도 이상하게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사도하라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신학대학원을 끝내고 왔는데, 일부러 연구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했다고 한다. 제대로 배우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이분이 얼마나 캠프를 잘 하는지, 일본 사람이 한국어로 한국 사람을 한국사람보다 더 잘 웃는다. (웃음) 모리스 같은 분들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 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증거다.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암 보험금을 전부 신학교 건축을 위해 헌금했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임마누엘을 느끼게 되었다. 필리핀 신학교를 우리가 계속 후원해왔는데, 그렇게 제자가 안 나왔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온 것이다.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한 지역을 다 살렸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문은 열린다. 내가 응답받은 강단의 말씀을 전하면 다 살릴 수 있다. 전도는 당연히 생기가 되어 있다.

(3) 이때 필요한 것이 현장에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편지를 하는 것이다. 복음편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절이다. 그리고 번화가 있다. 전체 내용을 머리에 두고 하셔야 한다. 3과는 영접을 시키는 것이다. 물론 영접해서 왔을 것이다. 그러나 뭘 모르고 영접했을 수 있다. 그래서 원죄를 설명해 줘야 한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인격적 영접이 무엇인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과 인생에 주인으로 들어와 달라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도 기도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뭘 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교제 찾고, 알아서 훈련받고 다 하게 되어 있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 (1)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2)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다. 종교의 귀신과 다르다.
- (3)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 (4) 모든 것을 아신다.
- (5)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단지 속, 우상 속에 들어 있고, 제사 안 지내면 빠져서 재앙 주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 (6)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근본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진짜 주인이시다. 그분이 만드신 만물 속에 있으면서 그분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 (1)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다. 이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색깔을 못 본다고 해서 색깔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이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플라톤이 알고 이데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데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 (2)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있다.
- (3) 육체를 떠나면 죽는 것인데,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있다. 살아있을 때 영접해야 한다. 이 부분을 불신자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길, 그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 (1)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설명을 잘 해야 한다.
- (2)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이 하나님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복이가 착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세복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 못 한다. 자기 죄도 해결 못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할 수 있는 가치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1억 원 씩 다 빚을 졌는데, 300억 짜리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지 않나? 우리 모두의 죄도, 주님이 죽으시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 한 분 만으로 다 해결된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이다.
- (3)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 (4)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시다(마16:16~19).
- (5)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죄 없으신 이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정말 알고, 하나님으로, 구주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 (6)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 (7) 이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
- (8) 정말 예수님을 기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자.

4.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도 실패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영접한 후에도 예수님이 계속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체질이 되어야 한다.

- (1)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요14:26~27).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란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것 같 은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 점점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요즘 기도수첩 잘 하는 분들이 많다. 목사인 우리보다 더 잘 한다. 성화되고 성숙되어가는 것이다.

- (2)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 강단, 훈련, 공예배, 메시지가 많이 있지 않나. 이것을 붙잡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다. 영접하면 끝인가? 그러면 바로 천국 가야 한다. 한 달 전에 먹은 식사 메뉴 기억하시는가? 못 한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 (3)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도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잘못된 부분은 갱신하고 회개하고 버리게 되어 있다. 마약 환자도 마약 끊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닌가.

- (4) 시간,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 (5) 우리를 놓친 사단은 계속 방해한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수록, 성공할수록 시험거리를 계속 준다. 그래서 전도인, 구역장, 권찰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단은 큰 일 할 사람을 더욱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해하고 기도해야 한다. 중보기도해 주어야 한다.

- (6) 성령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된다.

- (7)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 (8) 증인으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4:6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으로 죄, 사단, 재앙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 누구도 그런 존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결론

이것을 가지고 다락방 결론 10가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 (1)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 요한도 그냥 오직 한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이다.
- (2) 그러려면 개인을 치유해야 한다. 영적 문제, 악습 문제, 너무 많지 않나. 개인을 치유해야 한다.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을 살려야 한다.
- (3) 동기가 없어야 하고,
- (4) 자세히 보아야 한다.
- (5) 현장으로 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지교회, 다락방, 해외현장, 가야 한다. 모두가 300현장에서 주역이 되어야 한다.
- (6) 평신도가 주역이 되어서 말씀운동으로 현장을 살려야 한다.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 사회에서 기독교인 이미지가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도 여러분이 나쁜 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그렇게 보게 된다. 현장을 살려야 한다.
- (7) 날마다 갱신해야 한다.
- (8)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9)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 (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는가? 우리는 한 일이 너무나도 적는데, 천사가 상급을 어마어마한 상급을 가지고 오니까. “아니, 내가 뭘 했는데 이만큼 많이 주시나요?” 그러면 천사가 말해줄 것이다. “아, 이것은 찬양대 한 주 헌신한 것 때문에 주는 것이고, 지금 저 뒤에 계속 있는데요.” 상급이다. 문제 있는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 우리는 다 보장받았지 않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상급이 있다. 랩먼트 돌본 것, 결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 찬송 크게 부르는 것, 앞자리 앉는 것, 반드시 상급이 있다. 우리는 상 줄 수 없는 부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말씀운동 속에서 모든 답과 최고의 행복을 얻도록 참된 증거를 얻어라. 최고의 증인으로 쓰임받아라. 우리의 모습에서 임마누엘이 보여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 되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란다.